

* 칸트 "동물 학대는 안되! 그건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"

- 동물은 이성을 지니지 않음 ⇨ 어떤 (목적)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
- 동물은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함/ 동물에 관한 인간의 의무는 (간접)적인 의무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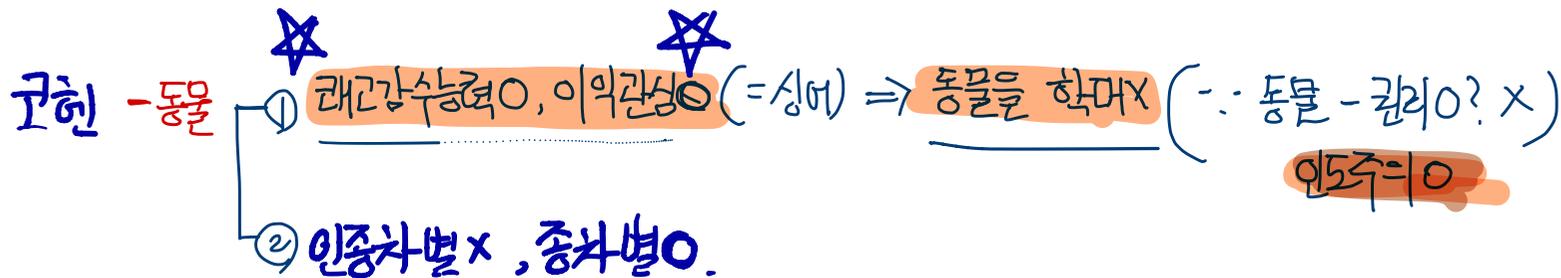
↳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.

다) '라고'를 느낄수 있는
동물의 존재 인정
but 권리 x

* 코헨 "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소유할 수 없어!"

- 동물은 윤리규범을 고안할 능력이 없으며 (이성, 자율성)이 없음.
- 인종차별은 정당화될수 없음. 그러나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정당화 가능!
- 인간이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될 도덕적 의무가 존재함(인도주의적 의무)

but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!



Q1.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

***기준을 다르게 생각하자!

1> 피터 싱어(공리주의적 관점=동물이 느끼는 고통 감소/동물의 이익 관심을 도덕적으로 고려)

- ① (**쾌고감수능력**)이 없는 존재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님!
***이익 관심<좋음과 싫음>을 갖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!
- ② (**이익 평등 고려의**) 원칙 : 평등하게 고려 / 다르게 대우!
- ③ **종 (차별)** 반대 : 종차별주의는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과 다를바 없음.
- ④ 동물실험 기본적으로 반대

BUT 예외적으로 허용 : 인간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 또는 동물 실험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주 크고 의미 있는 경우

2> 레건 "의무론적 관점 = 목적으로 대우, (**내재적**) 가치

- ① 도덕 행위자 + 도덕 (**무능력**)자도 삶의 주체로서 (**내재적**)가치를 지닐 수 있음
- ② 일부 동물(한살 정도 포유류)는 지각, 감정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삶의 (**주체**)임!

***공리주의 비판 : 동물 복지, 실험 방법을 개선하려는 공리주의적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함!

Q2. 보부아르, 길리건, 나딩스의 성평등 윤리

1> 보부아르 "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"

****밀과 유사(밀 = 공리주의자. 양성평등 주장,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사회적 유용성 강조)**

① 여자다움이라는 성 정체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님

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된 것이다! ⇒ 선천적인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 형성된 여성성 자체이다.

② **객체**로 전락한 현 사회 비판 ⇒ 여성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함

③ 남성으로부터 **여성의 경제권 독립**을 주체성 회복의 조건으로 강조함.

2> 길리건 "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은 달라" ⇒ **배려윤리**

나딩스 "관계와 맥락을 고려" - 윤리적 배려의 원형은 모성적 배려와 비슷함.

① 남성 = 정의 윤리(권리, 공정성, 이성적, 합리적)

여성 = 배려 윤리(희생, 동정심, 감정, 공감, 관계)

*****남성과 여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어야 한다**

2024. 4. 8 (月)

* 가족윤리: '유교'

(1) 부부윤리: 천륜 x, 인륜의 시작.

① 부부유별: 차이인정 → 여할남당. 남별 [고정 x. 차별 x]

② 상경어빈: 손님 대하듯 서로 존경

③ 음양론: (서로) 상반 / 상호 보완적

(2) 부자관계의 윤리: 종주인 관계 / 일방적 지배, 복종 x. (간이가능)

① 부자유친: 천륜 0, 서로 친해야 함.

② 부자차효: 쌍무적, 호혜적.

③ 효: 인의 시작: 불감추상 / 불양 (불안) | 양지 (정안) | 임신양명 (호의 관성) a) 공대, 발육, 호정신성
↳ 호의 시작

(3) 형제관계: 수직적(장유) + 수평적(동기간), 같은 방향.

① 수직적: 손, 복제적 위치) : 권명 = 부부
② 수평적: 우애, 평등